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을”...김 지사, 정부에 공식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장기 재정지원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시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임기근 차관 만나 전라선고속철 신속 추진 등 현안도 자치구 교부세 개선·지방 이양 재원 영구 보전 등 강조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처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갖는 만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도 요청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단계에 거쳐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업 재원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 재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5조 8천201억 원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인 8368억 원(14.4%)을 보전받고 있다. 2026년 말 전환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해당 재원은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적용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되며, 전남 등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전남은 5000억 원 이상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시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익산~여수 177.2km 급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것으로 1조

9326억 원 규모다.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

중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이지만, 경부선보다 운행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권 관광수요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수성과 정책 효과가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과 전략적 자원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산구, 청렴 광산 ‘365 캠페인’ 광산 광산구는 24일 구청 1층 로비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광산 365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 내 청렴을 일상화하고 자발적인 실현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조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통합 광주·전남, ‘융합산업 르네상스’ 연다

광주시, 르네상스전담팀 회의...통합경제권 실행계획 논의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지평을 새롭게 그리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산업 르네상스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단일 경제권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출범한 전담팀(TF)의 후속 조치로,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인

공지농산업융합사업단,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한국광기술원 등 지역산업을 이끄는 혁신기관들이 총출동해 통합 이후의 협업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통합 시대에 걸맞은 특화 비전을 제시하며 산업 혁신의 의지를 다졌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남과 협력해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양자클러스터 공모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

남광주특별시를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광주의 완성차 제조 역량과 전남의 소재·부품 및 핵심소재 등 에너지 기반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특히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기관 간 3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농기원, 곤충 활용 식품소재 산업화 속도 AI 생산기술·기능성소재·대체식품 등 연구과제 3건 선정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서 국비 연구과제 3건이 선정돼 곤충을 활용한 식품소재 산업화와 농가소득 향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정 과제는 AI 기반 곤충 생산기술, 기

능성 식품소재 개발, 대체식품 산업화다. 곤충 자원의 식품소재 활용 가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촌진흥청의 ‘AI 기반 곤충 자원 맞춤형 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 과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9억 원 규모

로 추진된다. 지역 부산물을 활용한 곤충 맞춤형 예코피드 생산 시스템 구축과 AI 기반 생산관리 기술 도입을 통해 곤충 사육의 자동화·표준화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기능성 식품소재의 대량생산을 위한 저탄소 정제 기반 소재화 기술개발’ 과제는 총 15억원 규모로 3년 9개월간 진행된다. 이현구 기자 gnnews1@

광주시, 반려동물 돌봄 대응...전문인력 양성

광주시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 과정과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반려견지도사(2·3급)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총 1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급증하는 반려동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 과정은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19~39세

청년 5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구비해 전자우편(photo25@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는 광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